

### 작년 외국인환자 2009년 이후 첫 감소

####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순으로 이용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전국 3009개

2017년 외국인환자 수가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환자 수가 22%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6년에 비해 12% 감소한 32만 15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전체 방문객 수도 2016년 대비 48% 감소했다.

2017년 기준 외국인환자 수는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다. 중국, 동남아시아, 동남아환자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태국환자는 56%나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 중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요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전체의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6년보다 22% 감소한 10만여명이었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진료료 많이 받았다. 이 중 성형외과 진료료 비중은 20% 수준이었다.

중동아시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전년대비 각각 21%, 16%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CIS국가의 환자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동남아는 한국 방문비자 취득이 어려운 베트남이 15%, 필리핀이 폐쇄화 약제로 16% 감소했다. 반면 태국은 56% 급증했는데, 태국환자의 62%가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돼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는 2% 정도 소폭 증가했다.

일본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만 7283명이었다. 중동의 전체 환자 수는 7238명으로 전년대비 비슷했으며, 이 중 아랍에미리트(UAE)가 3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UAE 정부의 국비지원 환자는 2016년 대비 18% 늘었다.

진료수입은 2016년에 비해 26% 감소한 639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99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 환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12%, 피부과

11% 순이었다. 한방, 신경외과, 치과 환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일반외과, 산부인과, 피부과는 감소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환자 수의 63%인 20만 2248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은 80%로 전년과 비슷했다. 인천이 12%, 대구가 4%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해는 3년마다 실시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경쟁제가 2017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수가 감소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수는 2017년 3009개(의료기관 1664개, 유치업자 1345개)로 2016년 4997개(의료기관 3115개, 유치업자 1882개)와 비교해 줄었다.

의료기관 중별로는 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27%, 종합병원 26%, 병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과 한의원 이용환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17%, 8% 증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환율, 유가,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에도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 증가했으나, 2017년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 건보공단, 30년 대화합의 역사적 자리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역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료보험 태동 및 발전기에 기여한 학계 및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하는 대화합의 자리를 4월 17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주요 위치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흥망대이로, 각 의견을 청취하고 건강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건보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1차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이어, 2000년 7월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완전통합해 출범했다.

당시 1차 통합과 완전통합의 과정에서 통합찬반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이는 1989

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논쟁의 연장선상이기도 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자리는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로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을 위해 당시 찬반의 당사자 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 화해의 자리”라면서 “조합이나 통합이나 논쟁은 모두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며, 이제 21세기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의 선배와 원로님들이 후배들과 함께 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 캠퍼스 음주문화 개선 앞장 ... 간호대학생 등 참여

보건복지부는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선도해나갈 전국 44개 대학, 50개팀 총 400여명의 대학생들로 이뤄진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원한다.

절주서포터즈는 대학 내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5개 대학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44개 대학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행태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고, 대학 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대학의 절주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알코올 클린 캠퍼스 조성 및 지역사회에 음주폐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모든 팀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참여인원을 팀별 소수정예인원(10명 이하)으로 제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문가의 멘토링을 상시 실시한다.

특히 간호대학을 비롯해 의료·보건·홍보·사회복지 등 전공분야를 살린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말에 절주서포터즈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활동을 펼친 총 9개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2018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은 ‘빛나는 청춘, 도전하는 절주리더!’ 슬로건 아래 4월 11일 열렸다. 절주서포터즈 활동수칙 선언문 낭독, 2017년 절주서포터즈 활동영상 상영, 절주의 필요성 및 SNS 홍보전략 특강, 선배서포터즈와의 만남 등이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는 대학 내 음주사고를 근절하고 절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생 맞춤형 절주실천수칙을 발표했다.

대학생 절주실천수칙은 다음과 같다. △폭 필요할 술자리가 아니면 피하기 △선·후배나 친구에게 술 가용하지 않기 △원샷, 하지도 말고 외치지도 않기 △폭탄주·사발주로 섞어 마시지 않기 △음주 후 3일은 금주하기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이면, 술 한 잔에도 얼음이 빠개지는 사람, 약 복용 중인 사람은 금주하기 등 6개 항목이다.

지나치게 술 취한 선·후배나 친구가 있을 때의 행동지침도 담겼다. 구토, 이상고열, 저체온, 의식불명, 호흡곤란 등 위험증상이 나타나지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뇌졸중환자 45% 발병 10년 이내 사망

#### 추적조사결과 발표 ... 10명 중 3명 장애등록

뇌졸중 발생 후 10명 중 3명은 장애를 겪으며, 10명 중 4명 이상은 발병 10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뇌졸중 신규환자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발생한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해 입원예외소드를 구축한 후 10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2005년 신규 뇌졸중환자는 4만 972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뇌경색이 66.55%, 뇌졸출이 32.13%였다.

뇌졸중환자 가운데 28.33%인

1만 4088명은 발병 이후 장애등록을 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이 79.18%, 지체가 8.35%였다.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 평균 22.48개월이 걸렸다.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4618억원이었다. 이 중 59.72%(2758억원)는 장애등록 환자들의 몫이었다. 장애등록 이전 진료비 1215억원, 장애등록 이후 진료비 1543억원으로 장애등록 환자들은 등록 이전에도 많은 진료비를 지출했다.

또한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 누적 사망률은 44.73%로 뇌졸중

발병 후 10년간 2만 2242명이 사망했다.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누적사망률도 증가했다.

연구책임자인 호승희 국립재활원 과장은 “뇌졸중은 요양기간이 길고 합병증이나 2차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면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에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 출범

국내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을 주도해나갈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가 4월 10일 만들어졌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며, 초대회장에 심한보 인트로메디 대표가 선출됐다.

창립총회에는 심한보 회장 등 14명의 발기인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산학연병 6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과 전후방 연관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심한보 회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산업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마이크로의료로봇이 신속하게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장은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내에 세우고,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써 4차 산업혁명 대응 아이템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마이크로의료로봇 상용화 연구개발부터 생산지원, 임상 등 제품화 과정을 전주거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기업과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 선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이미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이다. 대장내시경로봇, 캡슐내시경, 혈관치료 마이크로로봇 등 국내에서 개발된 마이크로의료로봇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장에 담았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시 20,000원 캐시백!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사이트 Nurselife 넬스라이프 www.nurselife.or.kr ☎ 1566-3137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세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b>koreanurse.or.kr</b>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b>nursenews.co.kr</b>

# 30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간호사 국가고시) 위생사 연세대 RN-BSN

##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공무원

### 8급 간호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시험 상세안내 보러가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해스티어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www.yulimgosi.com**